



이윤경 | 이화여대

## 1. 들어가는 말

사사기 신학의 주제는 폭력이다. 무엇보다도 사사기의 주제는 타자와 관련된 폭력의 이야기이다. 사사기에서 타자는 인종적 타자, 성적(性的) 타자, 지파적 타자로 나타난다. 이런 타자에 대한 폭력은 결국 자아의 정체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사사기는 타자를 단순히 인종적 타자인 ‘이방인’이라기보다 ‘적’으로 간주한다.<sup>1)</sup> 특별히 사사기는 여성을 타자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A00182)."

1) Uriah Y. Kim, "Postcolonial Criticism: Who is the Other in the Book of Judges?" Gale A. Lee(ed.), *Judges and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7), 174.

화한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방인에게보다 더 가혹하게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경악하게 된다.<sup>2)</sup> 갈렙은 딸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딸 악사를 포상으로 내걸고, 결국 기랏 세벨을 점령한 웃니엘에게 하사한다(삿 1:11-15).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레위인은 베들레헬 출신의 첩을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운간 당하여 죽도록 방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열 두 조각을 내버린다(삿 19장). 사사기의 저자는 이런 폭력을 통하여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한편 여전히 폭력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있는가?

사사기를 읽을 때 일어나는 이런 의문점으로부터, 본 논문은 사사기에서 가장 이해 불가한 입다와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매년 벌어지는 여성들의 애곡제의를 설명하기 위한 원인론적 설화라고 본다.<sup>3)</sup> 그러나 이런 설명은 입다의 딸의 희생 자체를 설명하지 못한다. 왜 성서는 입다의 딸을 위해서는 이삭을 위해 준비했던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를 장치하지 않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sup>4)</sup> 왜 입다의 딸이 희생당할 때는 요나단이 저주를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말려주었던 자들과 같은 사람이 없었는가? 왜 그들은 자녀의 인신제사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금지된 것(레 18:21; 20:2-5; 신 12:31; 18:10)이라는 것을 이 국면에서는 기억하지 않는가? 입다의 두 번의 승리(암몬전, 에브라임전) 사이에 위치한 개인적 비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입다의 딸을 위해 두 달 동안 애곡

---

2) 특별히 마이크 발은 사사기를 성과 연관된 폭력의 책으로 읽고 있다. Mieke Bal, *Death and Dissymmetry* (Chicago: University Chicago Press, 1988).

3) J. A. Soggin, *Judges* (OTL; Philadelphia, PA, 1981), 217. J. Gray, *Joshua, Judges, Ruth* (NCBC; Grand Rapids, MI: Eerdmans, 1986), 319. P. L. Day, "From the Child is Born the Woman: The Story of Jephthah's Daughter," P. L. Day (ed.), *Gender and Difference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89), 58-74.

4) 엑섬은 책의 한 장을 '하나님의 부재'라는 문제에 할애한다. C. Exum, *Tragedy and Biblical Narrative: Arrows of the Almighty*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45-69.

했던 친구들은 왜 저항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여성들은 매년 애곡으로 무엇을 기념하는가? 본 논문은 입다의 딸의 희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일어나는 술한 질문들에 대해, 폭력과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읽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입다의 서원을 중심으로 한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 이론을 중심으로 입다의 딸 설화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 2. 문제아 입다?

중세 유대인 랍비인 데이비드 김히(David Kimhi)는 입다의 딸이 실제 희생된 것이 아니라 평생 처녀로 살았고, 이로 인해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은유적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5)</sup> 그러나 다수의 의견은 입다의 딸의 희생을 이런 은유적 죽음보다는 실제 죽음으로 본다.<sup>6)</sup>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여성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입다의 딸 설화를 해석할 때,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압도적으로 입다를 비극의 주범으로 본다. 대표적으로 트리블(Tribble)은 “야웨의 영을 부여받은 선택된 지도자임에도 그는 신의 도움을 확신하지 못했고, ”<sup>7)</sup> 결국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조건을 내걸고 서원을 하는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본다.<sup>8)</sup> 웨즈(Weems) 역시 입다의 서원은 “생각 없는, ” “어리석은” 행위로 딸에게 고통을 가하였다고 본다.<sup>9)</sup> 아시스(Assis)

5) Barbara Miller, *Tell it on the Mountain: The Daughter of Jephthah in Judges 11*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5), 74.

6) J. 알베르토 소긴, 「판관기」 (조호진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306.

7) 필리스 트리블, 「성서에 나타난 여성의 희생」 (최만자 옮김), (서울: 전광사, 1989), 128.

8) 트리블, *위글*, 129.

9) Renita Weems, *Just a Sister Away: A Womanist Vision of Women's Relationships in the Bible* (San Diego, CA: LuraMedia, 1988), 61.

도 입다의 서원은 “이기적인” 행위라고 단언한다.<sup>10)</sup> 발(Bal)은 화행이론(Speech Act Theory)을 사용하여 트리블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즉, 입다가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필요한 말을 내뱉음으로써 비극적 행위를 초래하였다고 분석한다.<sup>11)</sup>

그러나 입다의 서원을 문제시 삼는 것은 여성신학자들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유대교 문헌에서 등장한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서의 입다 이야기를 충실하게 재진술하지만, 딸을 번제로 드린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도 아니었다. 그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행위였다”(유대고대사 5.7.10)<sup>12)</sup>라고 평가함으로써, 입다의 서원을 부정적으로 본다. 유사하게, 위경 필로(Pseudo-Philo)는 성서의 입다 이야기를 보다 확대하면서, 입다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위경 필로는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11:29), 입다가 서원을 한(11:30), 이 두 구절 사이에 암몬 왕과 입다 사이의 두 차례에 걸친 협상이 격렬하게 불발되는 과정을 삽입한다(*Liber Antiquitatum Biblicarum*, 이하 LAB 39.8-10).<sup>13)</sup> 위경 필로는 입다의 서원의 부적절성을 지적한다. “만약 개가 입다를 처음으로 맞으러 나온다면, 개를 내게 바칠 것인가?”(LAB 39.11).

중세 유대교의 미드라쉬에서도 입다는 부정적으로 묘사된다.<sup>14)</sup> 입다

---

10) Ellie Assis, *Self-Interest or Communal Interest: An Ideology of Leadership in the Gideon, Abimelech, and Jephthah Narratives (Judg. 6-12)* (Leiden/Boston: Brill, 2005), 234-237.

11) Mieke Bal, “Virginity: Toward a Feminist Philosophy”, *Dispositio* 12 (1987), 66-67.

12)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1」 (김지찬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335.

13) Pseudo-Philo, translated by M. R. James, *The Biblical Antiquities of Philo* (London: S.P.C.K., 1917). 온라인 버전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www.sacred-texts.com/bib/bap/index.htm>.

14) 미드라쉬의 입다 설화 재구성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Shulamit Valler, “The Story of Jephthah’s Daughter in the Midrash,” A. Brenner (ed.), *A Feminist Companion to the Bible: Judges (Second Seri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48-66.

는 딸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서원을 무효로 하거나 대체할 방법을 대제사장인 비느하스에게 간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욕과 명예욕으로 인해 요청을 하지 않았고, 비느하스도 껄뻐히 여겨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 결과 입다는 사지가 절단되어 죽게 되었고, 길르앗 여러 성읍들에 분산되어 매장되었다.<sup>15)</sup> 한편 비느하스는 신적 통찰력을 상실하게 되었다(Genesis Rabbah 60.3ff).<sup>16)</sup> 또한 미쉬나는 할라카에 직접적으로 위반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서원은 무효라고 선언한다(Mishnah Nedarim 2:1).<sup>17)</sup> 탈무드 역시 입다의 서원이 무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자신의 딸을 희생하였다고 본다(Jerusalem Talmud Pesahim 9:6).<sup>18)</sup>

이상에서 보듯 여성신학자들과 유대교 문헌에서 입다와 그의 딸에 관한 이야기 읽기는 입다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들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초점과 관심은 결국 ‘입다의 딸’이 아닌, ‘입다’의 이야기로 귀결된다. 그래서 폭스(Fuchs)는 사사기의 본문은 여전히 침묵과 모호성과 삭제라는 문학적 기교를 통해, 입다의 딸이 아닌, 입다를 비극적 영웅으로 극대화함으로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유지, 강화하고 있다고 본다.<sup>19)</sup>

이러한 입다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성서의 내적 증거를 살펴볼 때, 입다는 성서 안에서 긍정적이며,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사무엘은 고별사에서 사사시대를 회고할 때 대표적인 사사로서 자신을 포함하여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를 꼽았다(삼상 12:11). 사무

15) 사 12:7의 ‘길르앗 성읍들(גִּלְדָּאִתַּי וְגִלְדָּאִתַּי)’이라는 복수 형태에 주목한 주석이다.

16) Miller, *읽글*, 65-66.

17) Moshe Reiss, “Jephthah’s Daughter”, *Jewish Bible Quarterly* 37/1 (2009), 59.

18) Reiss, *읽글*, 59.

19) Esther Fuchs, “Marginalization, Ambiguity, Silencing: The Story of Jephthah’s Daughter”, *Journal of Feminist Studies in Religion* 5/1 (1989), 35-45.

엘은 입다의 서원을 결코 문제 삼지 않는다. 동일한 방식으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 목록에서도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가 제시된다(11:32). 여기에서도 딸의 살해라는 비극적 폭력을 초래한 입다의 서원은 전혀 그의 평가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입다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이스라엘을 적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대사사들 중에서도 앞자리를 차지하는 전설적 인물로 기억된다. 우리는 이러한 성서 내적 평가와 입다의 딸의 비극적 희생이라는 극단적 대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입다에 대한 성서와 해석자들 사이의 평가의 불일치 내지 부조화는 그의 서원을 어떻게 받아들여는지에 달려있다. 즉, 성서의 내적 증거들은 입다의 서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삼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입다의 딸의 희생은 결국 비극적 영웅 입다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문학적 장치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서의 내적 증거가 증언하는 대로 입다의 서원은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인가?

### 3. 입다의 서원은 왜 문제인가?

입다의 서원에 대한 여성신학자들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대 학자들은 입다의 서원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다. 예를 들어, 입다의 서원과 그로 인한 폭력을 입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나안 종교의 영향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 블록(Block)은 입다의 서원을 신실한 가나안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본다.<sup>20)</sup> 잔젠(Janzen)은 사

---

20) Daniel Block, *Judges, Ruth*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TN: Broadman and Holman, 1999), 188. 이런 관점에서 더 나아가 입다를 아예 비 이스라엘인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Robert H. O'Connell, *The Rhetoric of the Book of Judges* (Leiden: Brill, 1996), 182.

사기 전반의 주제인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입다의 딸에게 가해진 폭력은 사사시대의 이방의 도덕성을 차용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sup>21)</sup> 퓨얼(Fewell)은 “딸의 죽음, 하나님의 침묵, (말리는) 백성들의 부재”를 이스라엘의 부패한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sup>22)</sup>

한편 입다 설화를 편집사적으로 볼 때, 입다가 영을 받았다는 구절은 소사사였던 입다를 대사사로 변형시키기 위해 후대 편집자에 의해 삽입된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sup>23)</sup> 그렇다면 사사기 11장 29절의 “여호와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와 11장 32절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구절들을 후대첨가로 볼 때, 입다의 영 받음과 입다의 서원은 별개로서, 후대에 문학적으로 편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르자면,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하였음에도 서원을 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전쟁에 임하는 장군이 승리를 위해서”<sup>24)</sup> 불가피하게 서원을 한 자일뿐이다. 이런 편집비평에 근거하여, 이경숙은 입다의 서원을 불신앙의 행위라고 본 트리블의 평가는 “시대 상황을 왜곡한, 시대착오적 평가”<sup>25)</sup>라고 단언한다. 다른 한편 뢰머(Römer)는 입다의 딸 이야기는 헬라시대의 그리스 신화인 이피게니아(Iphigenia)<sup>26)</sup>의 영향을 받아

21) David Janzen, “Why the Deuteronomist Told about the Sacrifice of Jephthah’s Daughter”,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9 (2005), 35–36.

22) Danna Nolan Fewell, “Judges,” C. A. Newsom and S. H. Ringe (eds.), *Women’s Bible Commentar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71.

23) 노트, 리히터, 벨하우젠, 이경숙, “여성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입다의 딸 설화: 사사기 11장 1–40절”, 『기독교사상』 (1994년 2월호), 197에서 재인용.

24) 이경숙, *읽글*, 198.

25) 이경숙, *읽글*, 194.

26) 그리스 신화에서 아가멤논(Agamemnon)은 여신 아르테미스를 달래고 트로이 포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딸 이피게니아(Iphigenia)를 바치고자 한다. 아가멤논의 아내 클리템네스트라(Clytemnestra)는 남편의 행동에 분노하여 남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세운다. 또 다른 그리스 신화에서 크레테의 왕 이도모네우스(Idomoneus)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포세이돈에게 그가 해안에 도착하게 된다면 처음 보는 것을 바칠 것이라고 서원한다. 그가 처음 본 것은 자신의 어린 아들이었다. 이도모네우스는 자신의 서원을 지킬 수 없었다. 그 결과 제왕이 미치게 되고, 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 신화에서조차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신제사를 하겠다는 서원은 있지만, 이 서원이 실제 현실화된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 옮김), (서울: 민음사, 1997), 23–24.

삽입된 것으로 본다.<sup>27)</sup> 이처럼 입다의 서원을 후대의 편집적 삽입으로 본다면, 입다의 서원은 극적 효과를 위한 문학적 장치에 불과하게 된다.

또 고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입다의 서원이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에 주목함으로써, 편집비평 없이, 편집비평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예를 들어, 엑섬(Exum)은 입다의 서원이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원 자체를 문제시 삼을 수 없으며,<sup>28)</sup> 오히려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 그 영향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한다.<sup>29)</sup> 입다의 서원은 그의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sup>30)</sup> 유사하게, 로건(Logan) 역시 입다의 서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서셈족 수장으로서는 취할 수 있었던 적절한 행동임을 논증한다.<sup>31)</sup> 몬로(Monroe)는 고대사회에서 인신제사가 인간의 생명이 달려있는 전장에서, 신을 달래고, 신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졌다고 본다.<sup>32)</sup> 미크 발은 입다의 서원이 제의적 서원의 표준적 원칙을 준수한 서원임을 지적한다.<sup>33)</sup>

구약성서에서 일반적인 서원뿐만 아니라,<sup>34)</sup> 전쟁 상황에서 서원이 이루어진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1장 2절에서 아랏 왕과

---

27) Thomas C. Römer, "Why Would the Deuteronomists Tell about the Sacrifice of Jephthah's Daughter?",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77 (1998), 27-38.

28) Exum, *윗글*(1992), 56-57.

29) Exum, *윗글*(1992), 49.

30) J. H. Walton, *Zondervan Illustrated Bible Background Commentary*, vol. 2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9), 181.

31) A. Logan, "Rehabilitating Jephtha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8/4 (2009), 665-685.

32) Lauren A. S. Monroe, "Disembodied Women: Sacrificial Language and the Deaths of Bat Jephthah, Cozbi and the Bethlehemite Concubine",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5 (2013), 35.

33) Bal, "Virginity," 71.

34) 예를 들어, 아굽의 서원(창 28:20-22), 한나의 서원(삼상 1:11), 압살롬의 서원(삼하 15:7-8). 고대세계의 서원에 대한 일반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T. W. Cartledge, *Vow in the Hebrew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대전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서원을 한다. 액섬은 이 민수기에 나타난 서원과 비교시, 입다의 문제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이 지나쳤음을 지적한다.<sup>35)</sup> 민수기 21장 2절은 정복한 것을 무엇이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한 반면, 입다는 특별한 제물을 바친다고 하였다. 액섬은 이러한 입다의 지나치고, 성급한 성향은 에브라임 전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에브라임 지파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 아남에도, 입다는 즉각적으로 길르앗 사람들을 전투에 나서도록 한다.<sup>36)</sup>

결국 이경숙과 액섬이 공히 지적했듯이, 사실 입다의 서원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서원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sup>37)</sup> 그렇다면 입다가 서원할 때 진정 희생 제물로 삼고자 한 것이 사람인지 동물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sup>38)</sup> 문제는 바로 입다의 서원이 결국에는 인신제사로 귀착되었다는 점이다. 입다의 서원이 본질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보다 확고히 하고자 하는 처절한 승리에 대한 염원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혐오와 반감과 나아가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목숨이, 그것도 자녀의 목숨이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생사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고대 레반틴 지역에서 보편적 제의전승이었다.<sup>39)</sup> 성서 안에서도 이런 예는 찾아 볼 수 있다.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의 협공을 당하여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장자를 번제로 드렸다(왕하 3:26-27). 이로 인하여 엘리사의 승리 예견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결국 퇴각하게 되었다. 유다 왕 아하스(왕하 16:3)와 므낫세(대하 33:6)는 각각 시리아-에브라임 전

35) Exum, *윳글*(1992), 56.

36) Exum, *윳글*(1992), 57.

37) 이경숙, *윳글*, 197. C. 액섬, 「산산이 부서진 여성들: 페미니즘 비평으로 본 성서의 여성들」(김상래 외 옮김), (서울: 한들출판사, 2001), 31.

38) 마르쿠스는 양 쪽의 입장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다. David Marcus, *Jephthah and His Vow* (Lubbock, TX: Texas Tech Press, 1986), 13-18.

39) Monroe, *윳글*, 38.

쟁과 앓수르의 침공을 겪게 되기 전, 자신들의 아들들로 인신제사를 드렸다. 분명 이들의 인신제사 역시 단순한 이방종교의 모방 제사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구국의 행위로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레벤슨(Levenson)은 율법의 인신제사 금지에도 불구하고, 장자를 바치는 행위는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적절한 희생 제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sup>40)</sup> 결국 입다의 서원은 서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서원의 내용이 인신제사라는 무고한 희생양을 낳은 극단적 폭력을 초래하였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입다의 딸의 인신제사에 얽힌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4. 폭력과 희생양 메커니즘

르네 지라르(René Girard)는 인간의 모방 욕구로 인한 폭력의 위기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희생양을 생산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유지해 올 수 있었는지를 밝히는 일련의 연구를 수행해왔다. 지라르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망하는 존재라고 정의 내린다. 그런데 지라르는 우리의 욕망이 ‘주체적’ 욕망이 아니라, ‘모방적’ 욕망임을 날카롭게 밝히고 있다.<sup>41)</sup> 즉, 인간은 이웃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모방 욕망은 모방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경쟁을 불러오고, 이 경쟁은 주체와 대상 간의 차이를 소멸하는 지점으로 수렴하게 되고, 마침내 ‘상호적 폭력’으로 귀착한다.<sup>42)</sup> 이 모방위기의 폭력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

40) Jon D. Levenso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Beloved S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16.

41) 르네 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 송의경 옮김), (서울: 한길사, 2001). 이 책에서 지라르는 소설분석을 통하여 인간의 욕망은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비자발적 욕망’임을 폭로한다.

42) 지라르, *유클(1997)*, 261. 모방 메커니즘과 그 결과로서의 폭력의 상관성에 대한 지라르의 간결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르네, 지라르, 「문화의 기원」 (김진식 옮김), (서울: 기파랑, 2006), 2장.

게 된다. 공동체는 무차별화로 인한 폭력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차이를 생성하려는 움직임 보이는데, 그 결과가 바로 희생양이다. 공동체는 한 개인에게 그 적개심을 집중하고, 가상의 적으로 몰아 희생을 치르게 한다. 이런 폭력적 성향의 집단적 전이(轉移)를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한다.<sup>43)</sup> 희생양 메커니즘은 폭력의 진실을 감추고 있다. “일인에 대한 만인의 반대원리”<sup>44)</sup>가 초래한 희생양에게 가해진 폭력은 성스러운 폭력으로 차별화된다. 이제 죽임당한 희생양은 성스러운 존재로 탈바꿈한다. 수많은 희생양들이 희생제의를 통해 순교자가 되고, 위인이 된다. 이것이 종교적 제의와 신화의 시작이다.<sup>45)</sup> 이러한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 이론을 통해, 입다의 딸의 희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차이 소멸, 짝패<sup>46)</sup> 이스라엘과 가나안

입다 설화의 시작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삿 10:6)라는 시대상황 묘사로 시작한다. 이런 시대상황 묘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사사들의 통치 하에 살아가게 될 때, 이들이 주변 부족들을 모방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스라엘인들의 적극적 모방 욕구는 가속화되고, 가나안 인들과의 차이가 거의 소멸되는 지경의 경험을 하게 된다. 삼손의 예에서 보듯, 이 당시 이스라

43) 르네 지라르, 「희생양」(김진식 옮김), (서울: 민음사, 2007), 28-31.

44) 르네 지라르,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김진식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37.

45) 상세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지라르, 윗글(1997), 10장.

46) 지라르는 “동일한 욕망, 동일한 증오, 동일한 전략, 언제나 완벽한 일치상태에 있으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믿는 동일한 환상이 존재”하는데 이를 짝패(double)이라고 부른다. 지라르, 윗글(1997), 122.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의 문화, 종교적 짝패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하라. 허셜 생크스 외,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강승일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2장과 4장.

엘인들은 인종 간의 결합을 통하여 인종적 차이가 소멸되고, 그로 인해 문화적 차이가 소멸되고, 결국 종교적 차이가 소멸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스라엘인과 가나안인과의 접촉을 통한 차이 소멸로 인한 이스라엘인과 가나안인의 무차별화 현상은 상호경쟁으로 치닫고, 종국에는 상호폭력으로 분출된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향한 모방욕망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사사기 저자는 ‘죄, 징벌, 회개, 구원’이라는 순환적 구조를 통하여 설명한다.<sup>47)</sup>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의 자연적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은 각각의 양태가 갖는 고유의 정체성이 해체되고, 그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폭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이다. 사사기의 순환구조는 바로 이러한 모방 욕망에서 기인한 폭력성이 지속되고,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의 정체성이 ‘차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듯, 이스라엘의 ‘차별적’ 정체성은 주변 가나안 족속과의 상호성에 의해 점차 파괴되어 차이가 없어지는 무차별화를 통해 위기를 겪게 된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한 모방욕망 속에서 가나안과 경쟁하게 되고,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향해 경쟁하는 짝패현상(double)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폭력적 상호성은 문화적 차이의 소멸을 가속화함으로써, 모방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제 히브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 야웨와 바알/몰렉, 정과 부정의 차이가 소멸되고, 문화의 위기가 오고, 이것은 군사적 충돌이라는 전쟁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 2) 입다, 무차별화의 희생양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의 차이 소멸로 인한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타의에 의해 전장에 불려나오게 된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הַנְּזִיר הַבְּנֵי־גִלְגָּד) 벤 이샤 조나’이었다(11:1). 입다는 배다른 형제들에

47) G. 폰 라트, 「구약성서신학 I」 (허혁 옮김), (서울: 분도출판사, 1982), 330.

게 쫓겨나 뚝 땅에서 용병 부대를 구성하고 살았다(11:2-3). 입다는 집도, 가족도, 땅도 없이 쫓겨난 신세가 되고, 낯선 땅에서, 불안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입다는 곧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시 길르앗 땅에 입성하게 된다. 이것은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이 암몬 전을 앞두고 영입을 협상할 만큼 이미 군사전문가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폰 라드가 입다를 “직업적 전사”로서, 자발적, 영적 활동을 지닌 거룩한 전쟁의 지도자들과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닌 자라고 판단한 것은 정확하다.<sup>48)</sup> 입다는 부적격자인 모친에게서 태어나, 정치적으로 명예롭지 못한 평판을 누리고 살았지만, 상당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왕정요구의 일차적 원인이 가나안 부족들과의 군사대치로 인한 긴장감이었음을 감안할 때, 입다는 비록 합법성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sup>49)</sup> 입다가 이미 가나안 부족국가의 수장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강력한 모방 욕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길르앗은 유능한 군사 지휘관이 필요했고, 입다는 합법적인 영토와 국민이 필요했다. 입다는 ‘머리’와 ‘장관’(11:11)이 되는 조건으로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수락한다. 이희학은 구약의 용례 분석을 통하여, ‘머리’와 ‘장관’이 의미하는 바를 사법 행정가와 군사 지휘권 모두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up>50)</sup> 즉, 이런 시도는 왕정수립으로 가는 과도기의 모습을 노출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입다를 통하여 이웃 도시국가와의 정치체제의 차이를 소멸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입다는 이 협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다. 그는 이제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한다. 입다는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상호적 폭력에서 공동체의 평화로의 이행을 상징

48) G. 폰 라드, 「폰 라드 논문집」 (김정준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140.  
 49) “잡류”(11:3)는 정착지의 주변부에서 약탈자의 삶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G. F. Moore, *Judges* (ICC; Edinburgh: T&T Clark, 1976), 285.  
 50) 이희학, “사사 시대에 등장한 왕국 건립의 시도들”, 「구약논단」 12집 (2002), 41-51.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확실하게 하고, 이행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필연성의 노예가 된다. 그는 스스로 협상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길르앗 부족은 자신들이 한때 내쳤던 입다를 다시 내부인으로 수용하고, 지도자로 삼는다는 조건 하에, 입다를 암몬과의 전쟁을 위한 전쟁 무기로 삼는다. 입다 자신은 다시 길르앗의 내부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가나안 족속의 정치 시스템을 모방하여,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자 하는 매개된 욕망의 희생양이다.

‘관계 속의 폭력’이라는 말에서 보듯, 폭력은 결국 나와 타자의 문제이다. 입다와 암몬 족속의 전쟁, 이어지는 입다의 딸의 살해는 결국 입다와 길르앗, 길르앗과 암몬이라는 관계망 안에서 일어난 복합적 역학관계의 산물이다. 입다는 서원을 통하여 전쟁이라는 공동체의 위기와 ‘머리’와 ‘장관’이 된다는 협상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개인적 모방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통하여, 공동체의 외적 위기는 제거되었지만, 소사사의 역할인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서원을 충족시키고자 딸을 희생시킴으로써, 자신의 야웨종교에 대한 경건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입다는 자신을 내쳤던 길르앗과의 차이를 소멸하고자, 또 나아가 길르앗과 암몬 사이의 차이를 소멸하고자 하는 모방 욕망의 분출과정에서 딸을 희생하게 된다.

### 3) 입다의 딸, 희생대체

흑인 여성신학자인 쿠퍼(Cooper)는 입다의 딸을 이중으로 소외된 자로 보았다. 입다의 딸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성적 약자일 뿐 아니라, 기생이었던 할머니를 두고,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쫓겨난 아버지를 둔 사회적 약자임을 밝힌다. 이처럼 이중적 주변인이었던 입다의 딸에게 주어진 선택사항은 죽음 아니면 불명예였다. 그녀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다시 한 번 더 수치를 당하게 된다. 딸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는 서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에 없었다.<sup>51)</sup> 입다의 딸은 완벽한 희생대체(substitution sacrificielle)였다. ‘희생대체’의 목적은 폭력을 속이는 것이다.<sup>52)</sup> 폭력이 유발될지도 모르는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 사이에 희생물을 놓아둠으로써 희생물에 대한 폭력은 은폐되고 애초에 유발될 폭력은 중지된다. 그리고 폭력이 없던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고하게 하고자 신에게 서원을 하였다. 이제 그의 서원은 귀향한 그에게 또 다시 길르앗 내부인들과의 폭력을 유발할 기제로 잠재한다. 이런 잠재된 폭력을 은폐하고, 폭력을 제거할 대체물이 필요하다. 입다의 딸은 희생대체로 공동체와 아버지 앞에 던져진다. 입다의 딸은 지라르가 분석한 제의의 희생물로서 적격자였다. 그녀는 그 사회에 속하면서 동시에 성스러운 것에도 속하는 가장 이상적 희생물이었다.<sup>53)</sup>

희생물은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속해야 한다. 내부와 외부 사이의 완벽하게 중간적인 범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희생물로 삼으려는 모든 존재는, 그것에 요구되는 이 상호 모순적인 특성들 중에서 어느 한 편에 대해서 항상 어느 정도는 부족할 것이다. 즉, 그것은 외재성의 측면과 내재성의 측면에서 둘 다 동시에 결핍되는 경우는 결코 없지만, 어느 한 측면에서는 항상 부족할 것이다.<sup>54)</sup>

입다의 딸은 길르앗의 딸이지만, 길르앗에서 추방된 자의 딸이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종속된 성이었던 여성이었지만, 희생제사의 정결한 제물로 적합한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11:39). 무엇보다도 입

---

51) Valerie Cooper, "Some Place to Cry: Jephthah's Daughter and the Double Dilemma of Black Women in America Valerie," Cheryl A. Kirk-Duggan (ed.), *Pregnant Passion: Gender, Sex, and Violence in the Bible*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4), 187.

52) 지라르, *윳클*(1997), 15.

53) 지라르, *윳클*(1997), 409.

54) 지라르, *윳클*(1997), 410.

다의 딸은 처녀로 죽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복수해 줄 고엘(**ḫia**)이 없는 여인이었다.<sup>55)</sup> 입다의 딸은 공동체와 입다 모두를 위해 완벽한 희생대체였다.

#### 4) 희생제의, 만인의 일인에 대한 폭력

입다와 그의 딸은 죽음에 동의한다. 입다의 딸은 자신의 죽음을 애곡하기 위해 친구들과 산 위에서 두 달 간의 유예기간을 보내고 돌아온다. 이제 마침내 파국의 시간이 다가온다. 입다의 딸의 최후를, 사사기 11장 39절은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이라는 간단한 말로 보고한다. 이 장면은 지라르의 통렬한 표현인 ‘만장일치적 폭력’<sup>56)</sup>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입다의 딸이 희생되는 현장은 이스라엘과 암몬의 상호 폭력에서, 길르앗 내부인의 입다에 대한 배타적 폭력에서, 일인에 대한 만인의 폭력으로의 이행하는 순간이다.<sup>57)</sup>

입다의 딸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폭력의 현장에서, 아무도 말리는 이 없는 죽음을 맞이한다. 위경 필로는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경우와 달리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현자의 입을 막아 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입다의 딸이 도움을 요청할 때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LAB* 40.4). 왜 하나님은 입다의 딸이 희생제물이 될 때, 개입하지 않는가? 이 하나님 부재의 문제는 사무엘상 14장 24-30절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한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은 거룩한 전쟁의 전통에서 금식의 맹세를 한다.<sup>58)</sup> 그러나 요

55) 기혼 여성의 경우 그녀의 부모의 가족과 그녀의 남편의 가족 둘 다 연결되어 있으므로 둘 중 어느 한 쪽이 그녀의 제사를 살인 행위로 간주하고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6) 지라르, *윗글*(1997), 130.

57) 지라르는 상호적 폭력이, 만장일치적 폭력으로, 그래서 질서회복적 폭력으로 변모해간다고 본다. 지라르, *윗글*(1997), 147-149.

58) ‘거룩한 전쟁’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G. 폰 라드, *윗글*(1978), 119-129.

나단은 그 맹세를 듣지 못한 채 꿀을 찍어 먹고, 심지어 아버지의 맹세의 부당함을 백성 앞에서 지적하였다(14:29-30). 요나단의 행위로 말미암아, 블레셋 추격 여부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으로 듣지 못하게 되자, 결국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은 요나단이 죽어야 된다는 결론에 동의하기에 이른다(14:43-44). 그러나 이때에 백성들은 “이스라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라는 말로써 개입함으로써, 요나단의 죽음을 면하게 한다(14:45). 사울과 요나단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입다 역시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고 금의환향 하였다(삿 11:32-33). 입다의 승전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길르앗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입다의 비극을 막지 않았다. 입다의 딸이 승리의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인가? 입다는 서원(רָגַל 나다르)을 하였고, 사울은 맹세(עֲבַרְתָּ 사바)를 하였기 때문인가?’<sup>59)</sup>

그것은 바로 입다와 그의 딸은 길르앗의 완전한 내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희생제의를 통해서, 오히려 완전한 내부인임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주변인이었다. 입다의 딸의 살해는 하나님의 폭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초월(silent transcendence)’이 아니라 ‘침묵당한 초월(silenced transcendence)’<sup>60)</sup>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다의 딸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일 수밖에 없다.<sup>61)</sup> 또한 입다의 딸의 살해는 입다의 성급한, 과도

59) 히브리어 רָגַל는 주로 제의적 맥락에서, עֲבַרְתָּ는 저주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각각 G. J. Botterweck, H. Ringgren, H.-J. Fabry(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9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1998), 242-255. *TDOT*, vol. 14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2004), 311-336.

60) Exum, *윗글*(1992), 60.

61) 입다의 딸의 행위를 적극적 저항으로 읽는 학자도 있다. 예를 들어, 퓨얼은 입다의 서원을 미스바에서 공중 앞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을 알고 의도적으로 제일 먼저 아버지를 맞으러 나왔다고 본다. 즉, 입다의 딸은 죽음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인물이 아니라, 주도권을 갖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걸고 승리를 협상하는 아버지와 이스라엘 전체를 비난하고자 스스로를 내어놓았다고 본다. 또한 퓨얼은 입다의 딸의 희생제사에 이삭의 경우와 달리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한 서원의 결과로 치부하기에는 지나친 비극이다. 그의 딸의 살해는 입다 개인의 살해가 아니다. 공동체는 입다의 서원과 그 결과를 개인의 문제로 환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철저히 막아버리고, 입다에게 진정한 내부인임을 입증하도록 무언의 강요를 하고 있다. 그 입증을 통하여서만이 입다는 그들의 ‘머리’와 ‘장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입다의 딸을 희생양 삼는 만장일치적 폭력에 가담한 공모자이자, 은폐된 주모자이다.

### 5) 애곡제의, 신화가 아닌 성서가 된 딸

이제 입다의 딸은 죽었다. 그녀는 죽어서 신화가 되었다. 입다의 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해마다 나홀간의 ‘애곡’을 행하였다(삿 11:40). 이 매년제에 대해서 데이와 미크 발은 나홀간의 애곡제의는 젊은 여성의 육체적 성숙과 결혼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통과 의례라고 본다.<sup>62)</sup> 미드라쉬는 입다의 딸의 죽음 이후 나홀 간 계속된 애곡이 왜 나홀인지와 관련한 전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전설에서 숫자 4는 춘분점, 추분점, 하지점, 동지점과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sup>63)</sup> 이경숙은 이런 애도

---

요나단의 경우와 달리 백성들의 개입이 없는 것은, 입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다(Fewell, “Judges,” 71). 김재구는 입다의 딸이 인신제사에 순종하고, 이 당시의 어느 누구도 사울의 요나단 처형을 막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입다 당시의 이스라엘인들이 모두 바알화가 되었다는 증거이며, 입다에게 여호와와는 바알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입다의 딸,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4호 (2009), 29-51.

62) Bal, 윗글(1988), 46-48, Day, 윗글, 58-74.

63) 미드라쉬에 따르면, 태양이 네 번 돌 때 핏방울이 물을 오염시킨다. 각 오염은 성서의 설화와 관련이 있다. 춘분점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매년 핏방울이 물속에 스며들어 오염을 시킨다. 하지점에서 모세는 바위를 깨뜨리고 피가 솟아나게 하는데, 매년 한 방울의 피가 물속에 떨어뜨려진다. 추분점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해하고자 손을 뻗고, 칼이 피를 흘리기 시작할 때, 한 방울의 피가 물에 던져진다. 마지막으로 동지점에서 입다가 딸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의 칼이 피를 흘리기 시작할 때, 한 방울의 피가 물에 던져진다. 이 나홀의 날에 태양이 돌 때, 이스라엘의 딸들은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을 하러 간다. 이 이야기들의 성서본문에서 피는 이집트의 재앙에서만 오염원이다. 나머지 세 번의 이야기

의식은 단순한 애도만이 아니라, “인신제사 종결, 억울함과 희생이 없는 평등 사회 건설, 사회 변혁 등의 지름길”이 되게 한 여성의 연대적 활동이라고 본다.<sup>64)</sup> 워즈 역시 입다의 딸 설화는 남성 입다의 극단적 서원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서 시작하여 여성들의 서로를 향한 헌신으로 끝을 맺는다고 본다.<sup>65)</sup> 또한 미크 발도 구전 역사를 기억을 돕는 문화적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동료 처녀들이 딸들 사이의 연대라는 긴급한 임무를 통하여, 완벽한 망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sup>66)</sup>

이 나홀간의 애곡제의와 관련하여 본문의 히브리어 동사 ‘תָּנָה(타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히브리어 ‘תָּנָה’를 70인역과 라틴어역은 각각 ‘θρηνηῖν’와 ‘plangent’로, 개역개정은 ‘애곡하다’로, 새번역은 ‘애도하다’로, 영역은 ‘to lament’(KJV, RSV), ‘to commemorate’(NIV), ‘to chant dirge’(TNK)로 번역한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동사의 사사기 5장 11절에서 ‘야웨의 승리를 자세히 말하는 것’이라는 용례를 고려한다면, 히브리어 ‘תָּנָה(타나)’는 여자들이 입다의 딸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거나 혹은 ‘기념’하였음을 시사한다.<sup>67)</sup> 그렇다면 매년 나홀간의 제의를 통하여 이스라엘 여성들이 되풀이하여, 자세히 말하고, 기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엑섬은 이 나홀간의 애곡제가 가부장제에 부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버지의 권위에 순복하여 죽음을 불사한 입다의 딸의 희생을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기념할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대대손손

---

는 이삭의 희생, 바위를 깨뜨림, 입다의 딸 살해로 인한 피를 상상케 한다. 이 전설은 애곡제를 이방제의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대변한다. Miller, 윗글, 72.

64) 이경숙, 윗글, 199-201.

65) Weems, 윗글, 67.

66) Bal, 윗글(1987), 79.

67) 트렌트 버틀러, 「사사기」(조호진 옮김), (서울: 솔로몬, 2008), 703.

남성 중심적인 이데올로기에 복종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본다.<sup>68)</sup> 엑섬의 이런 지적은 폭력의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숭배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희생제물에 대한 지라르의 관점과 맞닿아있다.<sup>69)</sup> 이런 관점에서 엑섬은 애곡제의를 통해 희생자를 기억하고 칭찬하고 미화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입다를 잔인한 살해자로, 입다의 딸은 무고한 희생양이라는 박해(살해)자와 희생양의 이분법은, 결국 입다 역시 희생양이라는 사실과 입다의 딸 역시 살해의 공모자라는 사실을 덮어버리는 것이라고 본다.<sup>70)</sup>

그러나 입다의 딸과 관련된 매년 애곡제가 되풀이하여 자세히 말하는 것이 가부장제의 희생 이데올로기에 부여하는 것에 모든 의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입다의 딸 설화는 이미 그 자체로 많은 회의와 의문을 남겼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후대 유대문헌들이 침식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개작하였다. 입다의 딸에게 가해진 폭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비극과 혐오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 여성들이 가부장제라는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주어진 나홀간의 카타르시스적 애곡제의를 통하여 되풀이하여 자세히 말하고자 한 바는, 입다의 딸에게 가해진 폭력의 부당성을 되새기고 폭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라르가 말한 더 나쁜 폭력을 방어하는 작은 폭력인, 희생제 의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sup>71)</sup> 바로 여기에 성서의 기자가 입다의 딸의 희생과 그녀의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자세히 말하는 애곡제의를 기록한 의미가 들어있다. 입다의 딸은 신화가 된 것처럼 보인다. 입다의 딸은 이름도 없이 잘못된 아버지의 서원 탓에 집단폭력의 희생물이 된 비극의 여주인공으로 신화가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라르가 지적한 것처럼

---

68) 엑섬, *윗글*, 50-52.

69) 지라르, *윗글*(1997), 145.

70) 엑섬, *윗글*, 52.

71) 지라르, *윗글*(1997), 156.

럼,<sup>72)</sup> 신화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희생물을 죄인으로 표현한다면, 성서는 아버지, 공동체의 남성과 같은 은폐된 군중의 폭력을 폭로하고, 입다를 무고한 자로 기록한다. 성서는 이 사실을 그녀의 딸의 희생을 기리는 여성들만의 매년 애곡제의를 통하여, 폭력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되풀이하여 자세히 말하고 있다.

## 5. 맺는 말

지금까지 여성신화학자들은 주로 입다의 딸의 죽음의 원인을 입다의 서원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입다의 서원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전쟁과 같은 공동체적 위기 상황에서 종교적 경건성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밝히고, 입다의 서원이 인신제사라는 비극으로 종결된 것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는다. 본 논문은 이 인신제사가 결코 입다 개인의 성급한 성격이나,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복합적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모방위기가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입다의 딸 설화에는 두 가지 양태의 모방적 경쟁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첫 번째 양태는 길르앗의 아들들과 그들의 배다른 아들 입다 사이의 모방 위기이다. 두 번째 양태는 길르앗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사이의 모방 위기이다. 암몬이 롯의 후손(창 19:38)임을 감안할 때, 이들은 태생적으로 모방적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모방경쟁은 희생위기를 초래하고, 그 와중에 입다의 딸은 희생된다. 그런데 성서는 입다의 딸이 살해된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위한 매년 열리는 나흘간의 애곡제의가 존재했음을 알리고 있다. 본 논문은 이 애곡제의는 단순한 애곡이 아니라, 입다의 딸이 남성들의 폭력적 모방 경쟁

---

72) 지라르는 그의 책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에서 신화와 성서의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점을 통렬하게 분석한다.

의 희생양임을 되풀이하여 자세히 말하는 제의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 6. 참고도서

- 김재구, “입다의 딸,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4호 (2009), 29-51.
-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 옮김), (서울: 민음사, 1997).
- \_\_\_\_\_,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 송의경 옮김), (서울: 한길사, 2001).
- \_\_\_\_\_,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김진식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 \_\_\_\_\_, 『문화의 기원』 (김진식 옮김), (서울: 기파랑, 2006).
- \_\_\_\_\_, 『희생양』 (김진식 옮김), (서울: 민음사, 2007).
- 알베르트 소긴, 『관관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 엑섬, C. 『산산이 부서진 여성들: 페미니즘 비평으로 본 성서의 여성들』 (김상래 외 옮김.), (서울: 한들출판사, 2001).
- 이경숙. “여성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입다의 딸 설화: 사사기 11장 1-40절”, 『기독교사상』 (1994년 2월호), 192-202.
- 이희학. “사사 시대에 등장한 왕국 건립의 시도들”, 『구약논단』 12집 (2002), 27-52.
- 트렌트 버틀러, 『사사기』 (조호진 옮김), (서울: 솔로몬, 2008).
- 필리스 트리블, “입다의 딸의 의성을 애도하는 한 신학적 명상”, 『신학사상』 35집 (1981), 802-827.
- Assis, E., *Self-Interest or Communal Interest: An Ideology of Leadership in the Gideon, Abimelech, and Jephthah Narratives (Judg. 6-12)* (Leiden/Boston: Brill, 2005).
- Bal, M., “Virginity: Toward a Feminist Philosophy” *Dispositio* 12 (1987),

65-82.

\_\_\_\_\_, *Death and Dissymmetry* (Chicago: University Chicago Press, 1988). Brenner, A., ed., *A Feminist Companion to Judg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_\_\_\_\_, *Judges: The Feminist Companion to the Bible (Second Series)*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Cooper, V., "Some Place to Cry: Jephthah's Daughter and the Double Dilemma of Black Women in America Valerie", Cheryl A. Kirk-Duggan(ed.), *Pregnant Passion: Gender, Sex, and Violence in the Bible*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4), 181-191.

Exum, C., *Tragedy and Biblical Narrative: Arrows of the Almighty*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Fewell, D. N., "Judges," C. A. Newsom and S. H. Ringe(eds.), *Women's Bible Commentary* (L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73-83.

Fuchs, E., "Marginalization, Ambiguity, Silencing: The Story of Jephthah's Daughter", *Journal of Feminist Studies in Religion* 5/1 (1989), 35-45.

Janzen, D., "Why the Deuteronomist Told about the Sacrifice of Jephthah's Daughter",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9 (2005), 35-36.

Lee, Gale A. ed., *Judges and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7).

Levenson, J. D.,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Beloved S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Logan, A., "Rehabilitating Jephtha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8/4

(2009), 665-685.

Marcus, D, *Jephthah and His Vow* (Lubbock, TX: Texas Tech Press, 1986).

Miller, B, *Tell it on the Mountain: The Daughter of Jephthah in Judges 11*.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5.

Monroe, L. A. S., “Disembodied Women: Sacrificial Language and the Deaths of Bat Jephthah, Cozbi and the Bethlehemite Concubine”,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5 (2013), 32-52.

Moore, G. F., *Judges* (ICC; Edinburgh: T&T Clark, 1976).

Reiss, M., “Jephthah's Daughter”, *Jewish Bible Quarterly* 37/1 (2009), 57-63.

Römer, T. C., “Why Would the Deuteronomists Tell about the Sacrifice of Jephthah’s Daughter?”,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77 (1998), 27-38.

Sjöberg, M., *Wrestling with Textual Violence: The Jephthah Narrative in Antiquity and Modernity*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6).

검색어

입다의 딸

르네 지라르

희생양 메커니즘

모방 위기

차이소멸

## René Girard on Jephthah's Daughter's Sacrifice

Yoon Kyung Lee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Feminist theologians have ascribed the primary cause of the tragic death of Jephthah's daughter to her father's hasty vow. But this paper addresses that Jephthah's vow itself was not the real cause. Rather, his vow could be considered to be a pious religiosity, considering the context of the battlefield. The real problem of his vow should be found in the very result of human sacrifice. Yet this paper presents that the daughter's sacrifice was not the problem entirely of an individual, her father, but that of both her father and the community of the Gileadites through the interpretive lens of René Girard. This narrative reveals two aspects of mimetic crisis behind the scene. One aspect is between Jephthah and the Gileadites, and between the Gileadites and the Ammonites. Jephthah wants to be the insider of the Gileadites. In turn, the Gileadites want the political, military

www.kci.go.kr

and administrative constitution like the Canaanites. This mimetic desire inevitably results in military conflicts. Jephthah's daughter was entangled in such a mimetic crisis. She was sacrificed and then, annually her death was commemorated by Israelite women. This paper presents that the annual commemoration is not a simple lamentation for her death but, more importantly, to expose that the daughter was a scapegoat for patriarchal mimetic violence.

## Key words

Jephthah's Daughter

René Girard

Scapegoat Mechanism

Crisis of Mimesis

Dissolution of Differences

- 투고일: 2013년 7월 01일
- 심사일: 2013년 7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8월 05일

[www.kci.go.kr](http://www.kci.go.kr)